

가정 예배 모범

- 2021_12_26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헛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님 말씀하시면 (원제: 말씀하시면)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골로새서 2:6-15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토대로 살아가야 합니까?(6-8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 선택했다거나 우리가 노력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무의 줄기와 가지, 잎 등이 보이지만 땅 깊은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려도 뿌리 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매일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세상의 전통과 풍조에 흔들리지 맙시다.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9-15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충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납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형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따라 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